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신 30:19~20, 엡 4: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노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발신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제 목 제111회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결의 통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금번 제111회 총회에서는 총회 이단사이비 연구보고와 관련한 4건의 총회결의를 불임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노회와 교회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총회 결의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제111회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결의 통지" 사본 1부. 끝.

총 회 장
위 원 장

권 위 영
권 상 석



실장 유수정 총무 백명기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행정·재무처-12603 (2026.10.06)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 5F/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

전송 02-6008-2982

/ crystal@pcknet.org

접수-272

2026/10/15

서울북노회

/ www.pck.or.kr

/ 공개

제111회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결의 통지

1.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2.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3. 큰은혜교회 방춘희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4. 제94회 총회(2009년) 결의된 “알파코스에 대한 재결의 청원건”에 대한 연구보고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110회기 총회에서 순서노회장 구규승 목사, 순천남노회장 전명기 목사, 여수노회장 박영호 장로가 헌의안으로 제출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건’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분과에 수임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1. 질의 내용

위 세 노회(순서노회, 순천남노회, 여수노회)는 헌의안을 통해 다음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다.

- 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 ②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 ③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 ④ 성경이 기록된 후 2,000년 동안 닫혔다가 자신에게 열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 ⑤ 전광훈 씨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
 - ‘대한민국은 망한다’
 -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 ‘한국은 10년 동안 전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
- ⑥ 전광훈씨의 핵심 교리에 대하여
 -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의 식양이며 설계도이다’
 -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그 해석을 하였다’

- ‘바울이 하늘의 식양을 보고 만든 것이 서신서이며 교회이다’
- ‘전광훈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본 식양대로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 ‘전광훈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다’

⑦ 전광훈에 의한 한국의 피해에 대하여

2. 연구 내용

1) 전광훈 씨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광훈씨가 2019년 6월 청와대 앞 한기총 시국 선언 당시와 2019년 6월 18일 실춘수양관 성경 세미나 등에서 한 이 주장은 정통 기독교 신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계시의 완전성과 종결성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이단적 요소(직통 계시 등)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자신의 신학적인 신념을 표출하는 주장인지, 아니면 집회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발언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과시적 발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광화문 집회 때의 연설과 같은 정치적인 발언의 맥락이 아닌 예배 및 신앙 관련 집회에서 신자들의 신앙 진작을 위한 주장이나 자신이 하는 성서 해석의 권위와 정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발언이라면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106회기에 서울동노회, 서울노회, 전북노회, 경북노회, 순천노회, 여수노회 등이 헌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 전광훈씨에게 질문서를 보내 조사한 바, ‘언어적으로 과장된 표현이었으며 신학적인 의도는 없다’는 답변(2022년 8월 11일)이 이루어졌고, 이 답변서를 토대로, 이대위에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2024년 6월 9일 광화문 연합 주일예배 등에서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지속해서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이대위의 이전 연구보고서의 평가 즉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는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주장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해명처럼 단순한 언어적 실수가 아님은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계시(직통 계시)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통 기독교의 계시론, 즉 성경 66권에 대한 계시의 종결성과 완전성에 위배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추종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형적인 수법으로, 자신을 교주화하려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1월 29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성경세미나에서, “우리 교회 송영선 박사(전 국회의원)도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성경이 열려서 그런 것이다”라며 회중의 아멘 화답을 유도한 바 있다. 이는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

신을 신격화한 것으로 재고할 여지 없는 명백한 이단적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전광훈 씨는, 우리 총회 이대위에서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2022년 8월 11일)을 통해, 해당 발언은 ‘자신의 독단적인 교리나 주장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했던 말을 설교 중에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하며,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식(집회 및 강단)에서는 해당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세미나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 있어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대중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나 표현의 실수이거나 송영선 박사를 설교에서 인용한 차원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회중의 ‘아멘’ 화답을 유도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런 그의 발언은 은근한 자기신격화이자 우상화 행위이며, ‘나는 보좌를 꼭 잡고 산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신성모독적인 태도로, 자신의 말에 절대성을 부여하려는 이단·사이비 교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광훈 씨는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광주 실춘수양관에서 열린 성경세미나 설교 중에,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쓴 다섯 권(모세오경)이다.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안 한다. 그건 해설집이다. 지금도 유대 랍비 학교에서는 다섯 권만 성경이라 그런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전체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고백하는 기독교(개신교)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성경 66권 중에는 다른 책에 비해 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책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데, ‘모세오경 외의 다른 성경들을 한낱 모세오경의 해설서로, 성경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 교회가 공인한 성경의 정경성은 물론, 성경 66권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명백한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광훈 씨는 우리 총회 이대위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2022년 8월 11일)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4) 성경이 기록된 후 2천 년 동안 닫혔다가 자신에게 열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광훈 씨는 위 집회(2019년 6월 18일 경기도 광주 실춘수양관에서 열린 성경세미나) 설교 중에, “이 비밀이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때문에 2천 년 동안 완전히 덮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청교도(전광훈 자신을 지칭)에게 이것을 처음으로 열어주셨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기존 성경은 감추어져 있었고(봉인), 하나님이 그런 성경을 오직 자신에게만 열어 알려 주었다’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의 전형적인 미혹 논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광훈 씨는 이에 대해 우리 총회 이대위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2022년 8월 11일)을 통해, ‘성경의 몇 군데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해명도 문제가 있다. ‘성경의 몇 군데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문이 열렸다’는 주장 모두가 자신만이 성경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 성경 해석자 혹은 독점적 진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자신을 교주화 혹은 우상화하려는 이단·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전광훈 씨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

전광훈 씨는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개최된 성경세미나와 동 시기에 청와대 앞 집회 등에서, 자신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음성(계시)을 들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한국은 10년 동안 전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 ‘100년 후에는 전광훈의 말만 남는다(전광훈의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총회 이대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2022년 8월 11일)을 통해,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영감이었으나,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언어 표현의 한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기독교 교리적 주장이 아니라, 당시 정국을 비판하기 위한 이념적·정치적 언어였다’고 해명했다. 전광훈 씨의 이런 해명 중,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대한민국의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 등의 발언은 정치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자신이 기도하던 중 받은 성령의 음성 즉 계시라고 말한 것은, 신학적·교리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해명처럼, ‘계시’라는 표현이 자신이 깨달은 영감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한계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성령에 의해 깨달은 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신학적이고 교리적 성격을 띠는 점 때문이다. 이 역시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자신이 한 발언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단·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6) 전광훈 씨의 핵심 교리에 대하여

전광훈 씨는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개최된 성경세미나와 2019년 12월 21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의 식양이며 설계도이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그 해석을 하였다.’ ‘바울이 하늘의 식양을 보고 만든 것이 서신서이며 교회이다.’ ‘전광훈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본 식양대로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전광훈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다.’는 내용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총회 이대위에서 질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한 것은 언어적으로 조금 과장된 말’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고 지금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런 전광훈의 해명에 대해 우리 총회 이대위는, “‘이 시대의 선지자, 왕’ 같은 말을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상당히 지나친 말인 데 비하여, 잘못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더해, 전광훈 씨의 이런 주장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한 실수나 언어적 과장의 차원을 넘어서는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이나 종말론적 군주로 보여 신도와 청중들의 복종을 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 때, 이런 그의 주장들은 기독교의 그리스도론과 계시론, 종말론 모두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본 식양대로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메시아 됨을 거부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을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며, 성경을 통해 계시 되지 않는 사실을 자신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하는 극단적인 계시(직통 계시)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이단·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교주 중심의 새 세계 건설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7) 전광훈 씨가 한국교회에 끼친 피해

전광훈 씨의 극단적인 언행과 정치 선동 행보는 한국 기독교 전체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교회를 혐오의 대상이자 사회 갈등의 근원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설교와 집회 현장 등에서의 전광훈 씨의 기이한 발언들과 막말들이 미디어를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일부 시민에게 전광훈 씨의 주장이 한국 교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인식되어, 대중 사이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독교 비하 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전광훈 씨는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과 극단적인 우파 정치 이념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신앙을 왜곡하고 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한국은 10년 동안 전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는 주장이나, 2025년 비상계엄 선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미화하는 주장이나, 선거 때마다 추종자들을 이념적으로 결집시키는 도구로 엽기적인 종교적 메시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광훈 씨는 자신이 가진 정치적·물질적 욕망을 위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절대 선(善)으로 맹신하게 하고 이에 반대하는 신자들은 ‘빨갱이’ 혹은 ‘사탄’으로 매도하여 교회 내부의 영적·사상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광훈 씨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신앙인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법한 엽기적인 발언들과 폭언은 물론 불법적인 선동을 일삼으면서, 묵묵히 지역 사회를 섬기는 대다수 건강한 목회자들의 위상에 먹칠을 하며 정신적이고 실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은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심어주고 있고, 교회의 미래 자원이 될 젊은이들의 교회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교회 내 신자들의 가나안 성도화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광훈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인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 나아가 ‘평화’를 지

위버리고 그 자리에 ‘증오’와 ‘혐오,’ ‘저주,’ ‘폭력’을 채워 넣고 있다. 설교나 집회 연설에서, 자신의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해서 ‘처단해야 한다,’ ‘사탄이다,’ ‘나한테 대적한 사람은 죽는다,’ ‘전광훈 목사 씹는 놈은 구원 못 받는다,’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겠다’는 등의 저주를 쏟아내고, 급기야 신도들에게 사법기관 난입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주·선동하여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증오와 혐오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고 있다. 나아가 2025년 신도들에게 집회 참석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며 물리적 처벌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법원의 명도소송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맹목적인 증오를 생산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과격 분파’로 인식되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광훈 씨의 괴기스럽고 엽기적인 주장과 행위들로 인해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합리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건강한 보수 기독교의 이미지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광훈 씨의 발언과 활동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건강한 보수 신학과 신앙마저 외면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가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Ⅲ. 연구 결론

이상에서 다룬 연구 내용은, 110회기 총회에서 순서노회장 구규승 목사, 순천남노회장 전명기 목사, 여수노회장 박영호 장로가 제출한 헌의 안에서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세 노회가 의뢰한 사안들은 모두 이미 107회기 총회(2022년)에 보고되어 채택된 연구보고서에서도 평가가 내려진 사안들로, 107회기 총회에서는 전광훈 씨의 주장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고 하며, “그러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그가 소명서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는 목회자로서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는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하며,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전광훈 씨는 이후에도 각종 설교와 연설을 통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2022년 12월 31일), ‘전광훈 목사 씹는 놈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영이 없다’(2023년 01월 03일),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2024년 6월 09일), ‘기독교에 헌금하면 보석 달린 면류관이 딸랑거린다’(2024년 6월 30일), ‘내가 귀신론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2024년 10월 06일), ‘유대인의 7대 명절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것’(2024년 10월 20일), ‘통신사 이동 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야 한다’(2023년 4월 16일), ‘광화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100%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2025년 2월 16일), ‘물세례만으론 부족하고 성령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2025년 5월 11일), ‘나한테 대적한 사람 죽는다’(2025년 6월 29일), ‘십일조 안 하면 세례를 취소한다’(2025년 12월 28일),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꿈에 다 보여주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현역으로 복귀한다’(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인 2026년 5월 03일) 등, 기독교의 구원론과 계시론(성경관 포함),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107회기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전광훈 씨의 소명의 내용 즉 ‘총회가 제기한 문제적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언어 표현의 한계였고 이후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한 전광훈 씨의 해명은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전 총회의 평가 내용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광훈씨의 주장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단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포함된 위험한 발언이 대규모 집회나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광훈 씨는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참고 자료

- 1) 이단 규정 표준서
- 2) 순천남노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요청”에 관한 총회 헌의안
- 3) 순서노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 헌의 요청의 건”에 관한 총회 헌의안
- 4) 여수노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총회 헌의안
- 5) 107회기 총회 “전광훈 목사 연구보고서”
- 6) “이대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2년 8월 11일): 전광훈 목사 소명서
- 7) 기타 전광훈 씨의 설교 및 집회 연설 영상 자료

* 2025. 12. 28, “십일조 안 하면 세례 취소한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7&page=2&total=357>)

* 2025. 6. 29, “나한테 대적한 사람 죽는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84&page=6&total=357>)

* 2025. 5. 18, “성령세례 받아야 한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65&page=7&total=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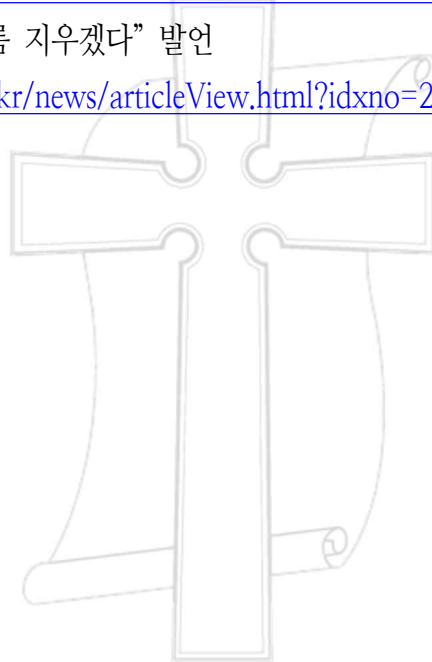
* 2025. 5. 11, “물세례만으론 부족하고, 성령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5&page=7&total=357>)

* 2025. 2. 16, “광화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100%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9&page=9&total=357>)

- * 2023년 4월 16일, “통신사 이동 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야 한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8&page=9&total=357>)
- * 2024. 10. 20, “유대인의 7대 명절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것이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9&page=11&total=357>)
- * 2024. 10. 6, “내가 귀신론에 대한 정답 가지고 있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2&page=11&total=357>)
- * 2024. 6. 30, “기독교에 현금하면 보석 달린 면류관이 팔랑거린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3&page=12&total=357>)
- * 2024. 6. 9,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발언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8&page=12&total=357>)
- * 2023. 1. 3, “전광훈 목사 씹는 놈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영이 없다” 발언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4>)
- * 2022. 12. 31,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 발언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5>)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순천남노회, 순서노회, 여수노회가 110회 총회에 제출한 ‘이명범 레마선교회 이단 해지 철회 요청 건’ 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분과에 수임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순천남노회, 순서노회, 여수노회가 요청한, 레마선교회(이명범)의 ① 성경 ②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이름 ③ 성령 ④ 창조와 인간 ⑤ 명령(소명)에 관한 주장의 이단성에 대해, 100회(2015년) 연구보고서와 101회(2016년)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1. 성경에 대한 이해

이명범 씨는,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여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명범 씨는 이런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한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다만 교육과 학문의 힘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본인은 칼빈의 전적인 타락을 믿기에 이성의 한계점을 강조한 것이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90쪽)

2.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이명범 씨는 양태론적 삼위일체 신관을 피력한다.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이 예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따로, 예수라는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으로서, 이것은 한 여자가 딸, 어머니, 아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고유한 위격(persona)을 가진 동일본질로서의 세 위격(tres personae)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단적이다. 이에 대하여 이명범 씨는, 이런 주장은 신학적 소양의 부족한 신학생 시절에 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후에 알게 된 후부터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본질로서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고 소명하였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59-72쪽). 나아가, ‘웨스트민스터 삼위일체 신앙고백과 이종성 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였다(『목회자신문』, 2015.6.20. 6쪽).

3. 성령에 대한 이해

이명범 씨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성령 이해 외에, 성령세례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철저히 분리했으며, 예수를 믿어도 방언 등의 성령세례를 따로 받지 않으면 무능력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쓰러짐, 입신, 진동, 방언 등의 외적인 현상을 성령 임재의 절대적인 증거로 내세워 성도들에게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유도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명범 씨는, 성령의 사역을 축귀로 국한 시켜버리기도 한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며, 성령이 오신 이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성령의 사역을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만 국한 시킨 것으로 반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침체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여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강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집회 중 성도들이 쓰러지거나 방언을 하는 신비주의적 현상은 사역자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차가워진 심령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부수적 현상일 뿐이라는 해명했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제4장 성령론/은사론).

4. 창조와 인간 이해

1) 창조

이명범 씨는 창세기 1장 1절을 원자 상태로 보고, 종말의 심판 후엔 현재의 땅이 원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 후 이 땅이 원자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원자 상태 자체가 창조 이전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기독교 정통 신앙의 내용인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에 배치되는 반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원자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은 신학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 내용이 담긴 자료(테이프 등) 전부 폐기했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72-73쪽).

2) 인간

이명범 씨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 중에서 혼에만 인격이 있을 뿐 영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이 아니라 혼에만 인격이 있다는 주장은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사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기능 면에서 혼은 흔히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인간의 기능을 평신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하며, 통전적인 인간관이 옳다고 인정한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80-82쪽).

또한 이명범 씨는, 인간이 뱀과 대화한 것 자체가 타락이므로 타락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육과 혼(인격)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에서 비로소 인간에게 영이 주어졌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김기동의 이중아담론과 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마귀와의 대화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서로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본 것뿐이라고 하며, 타락이 불순종 자체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소명한다.

나아가 이명범 씨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선악과가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명백히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선악과가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소명한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88쪽). 또 인간이 전인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도 영·혼·육의 전인적인 것임을 믿는다고 하며, 강의 도중 문제가 된 모든 내용은 1984년에 전부 폐기했다고 소명한다(『나의 신앙 나의 고백』, 84-85쪽).

5. 명령(소명)에 대한 이해

이명범 씨는,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레마선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을 신비적 체험으로 이야기한다. 기도를 하던 중 성령으로부터 ‘레마선교회를 설립하여 평신도들을 깨우라’는 직접적인 음성(계시)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성 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있어, 하나님이 자신을 평신도 전도자로 불러 은사와 권능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소명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지금도 성서 시대와 똑같은 신유, 축귀, 방언 등 기적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그의 직통 계시 주장은 계시의 완성인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선교회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이미 완성된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흔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명과 권능의 증거를 오직 치유, 쓰러짐, 진동 같은 눈에 보이는 신비적 현상과 은사 체험에만 두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소명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허황된 주장이다. 정규 신학 과정을 밟지 않은 평신도 신분(과거 기준)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안수기도를 행하고 선교 단체를 이끄는 행위를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성 교회의 질서와 목회 제도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명범 씨는 자신의 저서 『나의 신앙 나의 고백』과 교단 제출 소명서를 통해 자신의 소명 의식이 기성 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식의 소명 간증은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성령의 감동이나 기도 중의 깨달은 사실을 평신도 시절에 투박하게 표현하다가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고, 과거 평신도 사역으로 인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철저히 따르는 정통 목회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Ⅲ. 연구 결론

이명범 씨는 자신의 저서 및 언론을 비롯한 우리 총회 조사에서 과거 자신의 주장들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잘못이었음을 인정했고, 나아가 지난 2021년 10월 16일 우리 총회 교단지인 기독교보에 공고한 사과문에서도, ‘과거 의도하지 않게 한국교회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차후 통합 교단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한다’고 약속했다. 과거 자신의 신학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단적인 주장과 사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한 것이며, 교리와 신앙의 실천에 있어 우리 교단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르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명범 씨는 과거 이단 규정의 원인이 되었던 집회를 축소하고, 직통 계시나 은사주의 활동에서 탈피해 예명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 분열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범 씨가 설립한 예일교회 역시 ‘올리브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가입하여 정통 개혁주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나아가 레마선교회 구성원들도 기장 백석 총회 등의 정통 장로회 교단에 출석하여 바른 신앙 자세로 봉사하고 있다.

이에, 본 교단 총회 이단 해지 결정 이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른 교리에 따라 새출발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임과 동시에, 보편적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교단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합치한다는 점에서, 지난 106회 총회 (2021년)에서 결의된 이명범 이단 해지 결정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 자료

- 1) 이단 규정 표준서
- 2) 순천남노회, “이명범 ‘레마 이단 해지 철회’와 이단성 재조사 요청”에 관한 총회 헌의안
- 3) 순서노회, “이명범 레마선교회 이단 해지 철회 요청”에 관한 총회 헌의안
- 4) 여수노회, “이명범 레마선교회 이단 해지 철회 총회 헌의 요청의 건”에 관한 총회 헌의안
- 5) 총회 100회기 연구보고서
- 6) 총회 101회기 연구보고서
- 7) 기독교보에 공고된 사과문(2021년 10월 16일)
- 8) 이명범, 『나의 신앙 나의 고백』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자체 발행 소책자)
- 9) 『목회자신문』, 2015년 6월 20일

큰은혜교회 방춘희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110회기 총회에서 진주노회장 김정훈 목사가 제출한 ‘방춘희 씨에 관한 규제강화 및 용어 개정 요청 건’과 제109회기에서 이첩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총회의 “큰은혜교회 이단성 결정에 대한 협조요청”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수입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진주노회의 방춘희 씨에 대한 총회 결정을 ‘초청(참여) 자제’에서 ‘참여 금지’로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총회 서울강동노회 소속 큰은혜교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문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로 해소되었기에 교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 2010년 이후 방춘희 씨의 활동

2010년 95회기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제출한 “방춘희 씨의 ‘예언 신유 집회’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의거 ‘초청자제’를 결의한 이후, 안수받지 않은 여성 사역자로 받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자훈 목사가 김포큰은혜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였고, 방춘희 원장은 김포큰은혜기도원과 2013년에 개원한 제주큰은혜기도원 원장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김포큰은혜교회는 201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에 정식으로 가입(서울강동노회)하여 교단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김포큰은혜교회는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 지원과 지역 어르신 섬김, 해외 선교 및 사회봉사에 선교 활동에 전력하고 있으며, 김포큰은혜기도원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대규모 은사(신유, 예언) 집회 보다, 소규모의 집회를 통해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전인적 치유를 위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백석 총회 총회장과 이단연구조사위원회 이름으로, 이자훈 목사가 시무하는 김포 큰은혜교회와 방춘희 씨가 원장으로 사역하는 큰은혜기도원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실한 교회이며,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임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나아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존 교회를 분열시킨 일이 없다.

2. 방춘희 씨의 최근 설교 및 저술

방춘희 씨는 유튜브를 비롯한 대중적인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 홍보 및 말씀 사역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일반 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역 자료도 유튜브에 올라온 네 편의 설교로 매우 제한적이며 (이 중 두 편의 설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한 한편의 설교로 실제로는 세 편의 설교이다), 이것마저

도 김포큰은혜교회나 기도원 차원에서 배포한 것이 아닌 제3자가 개인적으로 게시한 자료이다. 교회와 기도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및 SNS, 관련 블로그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설교나 글은 없으며, 출판된 저작물 역시 없다. 이로 볼 때,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유관 교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대중들(한국교회의 일반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 공개된 네 편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단이나 사이비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29일 밋모섬기도원 초청 설교는, ‘인간의 경험과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과거 문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 즉 자신을 ‘영적 어머니’라고 말하는 내용이나 ‘눈 안수를 통한 영안 개안’과 관련된 발언 및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025년 3월 9일 소가야교회 주일예배와 8월 김포큰은혜교회 하계부흥성회에서 전해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사도행전 3:1-10)이라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육적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일반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전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고, 2024년 10월 13일에 전해진 “항상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라”(빌립보서 4:4-7)는 설교는, ‘참 기쁨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으로, 2010년 ‘예언, 신유 집회’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바 있는 이단 사이비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단, 2025년 3월 9일 소가야교회 주일예배 설교(“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다리와 허리에 힘이 생기며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해 달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치유 사역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 역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결론

‘방춘희 씨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방춘희씨와 김포큰은혜교회의 활동과 사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2010년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변함없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그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0년 총회 결의 이후, 신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도사 신분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포큰은혜교회 목회를 이자훈 목사에게 맡긴 것은 물론이고, 말씀과 집회 사역 역시 한국교회의 일반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유튜브 등 대중적인 미디어를 이용해 신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영적 권위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주장(예를 들어, 자신을 ‘영적 어머니’로 호칭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공개된 설교의 내용도 이단 사이비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청중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방춘희 씨와 김포큰은혜교회는 2010년 이후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사회적

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없고 백석총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0년의 연구결과에 따른 “참여자제”를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참고 자료

- 1) 이단 규정 표준서
- 2) 진주노회, “방춘희 씨에 관한 규제 강화 및 용어 개정의 건”에 관한 총회 현의안
- 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방춘희 씨의 ‘예언 신유 집회’에 관한 연구보고서”(2010년 95회기 총회)
- 4) 방춘희 씨(큰은혜교회) 관련 일지
- 5) 예장 백석 총회 발표문(2010년 2021년 4월)
- 6) 방춘희 씨 설교 영상
 - 밧모섬기도원 초청 설교 영상(2026년 5월 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0yMLIS3oq7I&t=43s>)
 - 김포 큰 은혜교회 하계 부흥성회 설교 영상(2025년 8월 05일)
(<https://www.youtube.com/watch?v=jzZ22fwqAMg>)
 - 소가야교회 주일오전예배 설교 영상(2025년 3월 09일)
(<https://www.youtube.com/watch?v=5W1PboCN53I>)
 - 소가야교회 주일오전예배 설교 영상(2024년 10월 13일)
(<https://www.youtube.com/watch?v=2ATGiBVI1ds>)

제94회 총회(2009년) 결의된 “알파코스에 대한 재결의 청원”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알파코리아에서 보낸 “「알파 코스」에 대한 제94회 총회(2009년) 결의에 대한 재결의 청원”이 총회에 접수되어(2025년 8월 18일),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조사분과로 이첩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내용

1. 제94회 총회(2009년)에 보고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청원 내용

알파 코리아에서 보낸 청원은 2009년 제94회 총회에 보고된 두 개의 보고서, 즉 「알파 코스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셀, D12, G12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두 보고서는 당시 알파 코스, D12, G12 등의 명칭으로 소개된 새신자 전도 및 양육 프로그램이 기존 교회 조직인 구역,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과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알파에서 “금이빨 사건,” “금가루 사건,” “쓰러지는 사역,” “팔 길어진 사역” 등 신비주의적 현상을 강조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존 교회의 분위기와 충돌하여 빚어진 목회적 어려움도 함께 지적한다. 2009년 당시 교회 현장에서 경험된 문제들과 알파 코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 자체는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알파 코리아가 “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알파 코스에 대하여 지적한 바에 따라, 알파코리아가 이전의 우려와 달리 완전히 새로워졌음과 알파 코스가 한국교회의 불신자 전도 및 공동체 형성을 돕는 도구임을 재결의해 주시기를 청원”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면담 조사 내용

일시: 2026년 7월 7일(화), 오후 3시

장소: 백주년기념관 2층 A회의실

참석자:

이대위 조사분과: 김종찬 목사(분과장), 김정진 목사(위원), 천세종 목사(상담소장)

알파 코리아 측: 구동휘 대표, 윤한진 장로(후원교회 대표)

1) 알파코리아의 설명 내용

알파코리아는 한때 “금이빨 사건,” “금가루 사건,” “쓰러지는 사역,” “팔 길어진 사역” 등의 신비주의적 현상을 강조하는 강사들이 있었고, 알파 코리아도 사역의 일환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강조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강조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적 어려움을 일으킨 것을 인식한 이후로는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 7월 현재 알파 사역을 하는 교회는 약 200여 교회이고, 알파 코리아 본분에서는 더 이상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교육하고 있고, 이런 신비적 현상을 추구하는 교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알파코리아의 요청 사항

알파코리아는 제94회 총회에 보고된 「알파 코스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알파 코스의 문제

알파 코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물의가 있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본 교단 안팎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불신자를 인도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소위 금이빨 사건, 금가루 사건, 쓰러지는 사역, 팔 길어진 사역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알파 코리아측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사역에 대한 강조를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교단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기로 다짐하여 91회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알파 프로그램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마지막 부분 “91회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알파 프로그램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였다.

III. 연구 결론

제94회 총회(2009년)에 보고된 「알파 코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당시 교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목회적 우려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 자체의 내용과 판단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알파코리아에 대하여 '참여 자제와 예의 주시' 또는 '참여 금지'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교회들의 목회적 유익을 요청한 연구보고였으므로, 이를 수정하거나 재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조사분과위원회가 알파코리아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알파코리아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신비주의적 현상(금이빨, 금가루, 쓰러지는 사역, 팔 길어진 사역 등)을 더 이상 장려하거나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의 알파코리아는 알파 코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 불신자 전도와 새신자의 교회 정착, 건강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분과와 연구분과는 현재의 알파코리아가 과거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점들을 개선하였으며,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도 현재는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알파 코스는 건전한 신학적 지도와 교회의 책임 있는 운영 아래에서 전도와 새가족 정착을 위한 유익한 목회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알파코리아는 앞으로도 교단의 신앙고백과 건전한 개혁신학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신비주의적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육과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총회 소속 교회들도 각 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알파 코스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성경적·신학적 분별과 목회적 책임 아래 운영하기를 권고한다.

